2019년 기상직 9급 한국사(A형) 정답해설

1. ㉠~㉣에 해당하는 국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왕을 부르기를 ㉠ 거서간(居西干)이라고 하는데, 진(辰)의 말로 왕이며 혹은 귀인(貴人)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한다. 또 ㉡ 차차웅(次次雄) 혹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한다. …… 또 ㉢ 이사금(尼師今)이라고도 하는데, 잇금을 이른 말이다. …… 혹자는 (왕을) ㉣ 마립간(麻立干)이라고도 부른다. …… 거서간과 차차웅으로 불린 사람이 (각) 1명, 이사금으로 불린 사람이 16명, 마립간으로 불린 사람이 4명이다.
>
> -『삼국유사』-

① ㉠ - 혁거세　　② ㉡ - 남해
③ ㉢ - 파사　　④ ㉣ - 미추

정답 : ④ 끼
④ 마립간은 수장을 뜻하는 '간(干)' 앞에 '마립'이 붙어서 이루어진 칭호로, 『삼국사기』에서는 눌지왕 때부터 지증왕 때까지, 『삼국유사』에 따르면 내물왕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① 『삼국사기』에 의하면 거서간은 왕을 뜻하는 진한(辰韓) 말로 존귀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첫 왕이었던 박혁거세만 사용한 왕호이다. ② 차차웅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하며, 신라에서 무당을 일컫는 말로, 남해왕이 사용한 왕호이다. ③ 이사금은 신라 말 잇금에서 유래한 호칭으로, 치아 수가 많은 연장자가 왕위를 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제3대 왕인 유리왕부터 탈해, 파사, 지마, 일성, 아달라, 벌휴, 내해, 조분, 첨해, 미추, 유례, 기림, 흘해왕까지 유지되었다고 하며, 『삼국사기』에 따르면 흘해왕 이후 내물, 실성왕까지 사용되었다고 본다.

2. (가)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정권과 그 호위 세력들은 소위 '반공임시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보강 등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반민족 악법을 공공연히 획책하고 있다. …… 현행 법만으로는 공산 간첩을 잡지 못한다는 억지보다 더한 억지가 또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전 논리적 대중 우롱을 받아들일 만큼 이 민족은 무지하지 않다.

① 향토 예비군 제도가 창설되었다.
②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이 발생하였다.
③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④ 진보당이 해체되고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가) 정권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 규재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통제하고자 한 장

면 내각이다.
③ 장면 정권은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작하였다. 10월 17일, 헌법 부칙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민의원에 제출되었다. 이후 11월 23일 민의원, 11월 28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11월 29일 반민주 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 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 박정희 정권은 1968년에 발생한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을 계기로 1968년 4월 1일에 향토 예비군 제도를 창설하였다. ②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0년 4월의 일이다. ④ 이승만 정권 시기인 1959년에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박정호 등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1959. 7. 30, 진보당 사건).

3.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학생은 관등이 대사(大舍) 이하로부터 관등이 없는 자로, 15세에서 30세까지인 사람을 들였다. 재학 연한은 9년이고, 만약 노둔하여 인재가 될 가능성이 없는 자는 그만두게 하였다. 만약 재주와 도량은 이룰 만한데 아직 미숙한 자는 비록 9년을 넘더라도 (가)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였다. 관등이 대나마(大奈麻)와 나마(奈麻)에 이른 이후에는 (가)에서 내보낸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① 박사와 조교를 두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②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③ 지방에 설치되어 한학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④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가)는 통일 신라의 국학이다.
① 국학은 경(卿) 1명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박사와 조교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또 실무직으로 대사와 사(史)가 배속되었다. 또한, 『논어』와 『효경』, 『예기』, 『주역』, 『상서』, 『모시』, 『춘추좌씨전』, 『문선』 등 유교 경전을 주로 교육하였다.
② 고려 시대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의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로 나뉘었다. ③ 고구려의 경당은 고구려 장수왕 때 지방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 교육 기관으로 한학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④ 조선 시대 지방 사립 교육 기관인 서원은 국왕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는 사액 서원이 될 경우 국가로부터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4. (가)에 해당하는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시의 백제 왕 근개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다. 도림이 대궐 문에 이르러, “제가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상당한 묘수의 경지를 알고 있으니, 원컨대 곁에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를 불러들여 대국을 하여 보니 과연 국수(國手)였다. …… 이에 도림이 도망쳐 돌아와 이를 보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며 백제를 치기 위해 장수들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근개루가 이 말을 듣고 아들 (가)에게 말했다.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썼다 이렇게 되었다.”

-『삼국사기』-

① 웅진 천도를 단행하였다.
②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③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④ 신라 눌지 마립간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정답 : ①
밑줄 친 (가)는 백제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이다. 장수왕이 첩자로 보낸 도림의 건의로 백제 개로왕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단행함으로써 국력이 약해졌고, 이는 한성 함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①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죽자, 뒤를 이은 문주왕은 475년에 백제의 도읍을 웅진(공주)으로 옮겼다.
②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것은 성왕 대의 사실이다. ③ 371년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④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433년 신라의 눌지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한 것은 백제 비유왕이다.

5.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을 뵈었는데, 황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을 깬 뒤에도 황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를 찾고, 하늘로 가서 반도를 찾아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안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①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② 국동대혈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하였다.
④ 낙랑과 왜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정답 : ④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은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과 혼인하였다고 전해진다.
④ 금관 가야는 풍부한 철의 생산을 바탕으로 한 제철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①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대 신라에 투항하였다. ② 고구려의 제천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③ 22담로를 설치하여 왕족을 파견한 왕은 백제 무령왕이다.

6. 다음 밑줄 친 '그'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관 중 일부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정시중이 문관들을 억눌러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 주고 무관의 위세를 펼쳤는데 시해당하다니, 누가 공을 시해한 그를 토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는 두려워 결사대 1백 수십 명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도방이라 불렀다.

① 전주 관노의 난이 진압되었다.
②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었다.
③ 이의방 등이 보현원 사건을 일으켰다.
④ 교정도감이 설치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바른 길이 빛나는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

정답 : ①
밑줄 친 '그'는 정중부를 제거한 뒤 집권하여 자신의 사적 집단인 도방을 설치한 경대승(집권 1179~1183)이다.
① 노비가 최초로 가담한 민란인 전주 관노의 난은 경대승 집권기인 1182년에 일어났다.
② 1176년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나자 무신 정권은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농민군을 회유하고자 하였다. ③ 보현원 사건(1170)은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문신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이후 의종을 폐하고 정권을 장악하며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 ④ 최충헌 집권기에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교정도감을 설치(1209)하여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7. (가), (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나) 당에 가서 벼슬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전후에 난세를 만나서 처지가 곤란하였으며, 모함을 받아 죄에 걸리겠으므로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다시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는 세속과 관계를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숲속과 강이나 바닷가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으며 책을 벗하며 자연을 노래하였다.

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설치되었다.
② 과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③ 선교일치 사상이 완성되었다.
④ 독서삼품과가 실시되었다.

정답 : ④
(가)는 신라 중대에 활동한 원효(617~686), (나)는 신라 하대에 활동한 최치원(857~?)이다.
④ 788년(원성왕 4) 유교 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 운영을 목적으로 국학 내에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였다.
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정치 기구이다. ② 과거제 시행은 고려 광종 대의 사실이다. ③ 선교 일치 사상의 완성은 고려 무신정권기에 수선사 결사 운동을 주도하였던 지눌에 의해서이다.

8.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중 한언공이 상소하기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물건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면 모름지기 옛 제도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왕을 계승하여 철전을 사용하게 하고 추포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풍속을 소란스럽게 하였으니, 나라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의 원망만을 일으킵니다.'라고 하였다. …… 이에 철전을 사용하던 것을 쓰임에 따라 중단하고자 한다. 차와 술, 음식 등 여러 점포에서 교역할 때는 전과 같이 철전을 쓰도록 하고, 이외에 백성 등이 사사로이 서로 교역할 때는 토산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라."

① 십전통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②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
③ 중강에서 후시가 열려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④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고려 목종 때 한언공의 상소문이다. 고려 왕조는 물품화폐대신 금속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활발하게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목종 5년에는 다점·주점·식미점에서만 이를 사용하고 일반 백성들의 개인적인 교역에서는 이전대로 포와 쌀을 주로 사용하게 하였다.
② 고려 시대에는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설치하였다.
① 십전통보는 효종 2년(1651)에 영의정 김육이 당시 수입 청전 통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전 통용을 위해 건의함으로써 만들어졌다.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지며 동전 가치는 십전으로 통용되었다. ③ 중강 후시는 조선 후기에 의주에서 중국과의 사무역을 하던 국제 시장을 말한다. ④ 시장 감독을 위한 동시전의 설치는 신라 지증왕 대의 사실이다.

9.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건무 왕 재위 25년에 (가)이/가 왕을 죽이고 장(臧)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 (가)이/가 죽고 장자인 남생이 대신 막리지가 되었다.
>
> -『삼국사기』-

① 신라에 투항하여 보덕국왕에 봉해졌다.
② 의열사(義烈祠)와 충곡서원에 제향되었다.
③ 비담, 염종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
④ 숙달 등 8명의 도사를 맞아들이고 도교를 육성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가)는 보장왕을 옹립하고 스스로 막리지에 오른 '연개소문'이다.
④ 연개소문은 다른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숙달 등 8명의 도사를 맞아들이고 도교를 육성하기도 하였다.
① 고구려 멸망 후, 신라는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금마저(익산)에 있게 하고 고구려 왕에 봉하였다(670). 이후 신라가 백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674년에는 안승을 다시 보덕국왕으로 임명하였다. ② 백제의 계백은 백제가 멸망할 때 홀로 절개를 지킨 인물이라 하여 부여의 의열사, 연산의 충곡서원에 제향되었다. ③ 647년 상대등인 비담을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의 반란이 발생하였는데,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를 진압하였다.

바른 글이 빠른 길입니다. 해설의 이름!
海東韓國史

10.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묘조(成廟朝)에 건주위의 역에 임시로 [(가)]을/를 설치하였는데, 재신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
> -『효종실록』-

①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 폐지되었다.
② 명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었다.
③ 현직의 3정승이 우두머리인 도제조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④ 기구가 강화됨에 따라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정답 : ②
제시된 (가)는 비변사이다.
② 비변사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임시 관청이며, 1555년 을묘왜변을 계기로 정식 관

청이 되었다.
① 비변사는 전제 왕권의 재정립을 지향하였던 흥선 대원군이 집권(1863)하면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일반 정무는 다시 의정부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비변사는 외교·치안·국방 문제만을 담당하게 했다가(1864), 다시 이듬해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국방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비변사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③ 비변사의 도제조는 의정부의 3정승이 겸하였다. ④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 군사·행정·외교 등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종래에 국가 정책을 총괄하던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을 분담하여 집행하던 6조의 기능도 약화되었다.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정권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 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 이외의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행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 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

① 신한 민주당이 창당되어 국회에 진출하였다.
②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③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이 조직되었다.
④ 금강산댐 사건으로 위기를 조성하였다.

바른 글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이다(1987).
③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 무효'라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체포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젊은 가톨릭 사제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이다.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 사회정의 실천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았다.
① 신한민주당은 1984년 12월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야당 정치인들이 해금되면서 1985년에 창당되었다. ② 1986년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한 여대생이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성적 고문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④ 1986년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댐(임남댐)을 축조하여 수공(水攻) 위협을 할것이라며 과장된 발표를 하며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금강산댐에 대응할 댐인 일명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 모금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2.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랫동안 세자가 없다가 무진년에 귀인 장씨가 아들을 낳자 왕께서 아주 사랑하여 세자 탄생의 예로써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송시열과 김수항이 불만의 말을 하자 왕께서 아주 싫어하셨다. 사람들은 김수항과 송시열이 당할 재앙이 이에서 싹텄다고 하였다.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파견되었다.
② 효장세자의 후사(後嗣)로서 왕위에 올랐다.
③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④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어영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1689년의 기사환국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왕'은 숙종이다.
③ 청은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청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경을 명확하게 하자는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모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숙종 38, 1712).
① 러시아가 극동으로 진출하면서 청과 대립하자 청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여 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 변급(1차, 1654))과 신유(2차, 1658)를 파병하였다. ② 임오화변으로 사도세자(장헌세자)가 죽음을 당하자 정조는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④ 어영청은 1623년의 인조반정으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고 국제적으로 후금과의 관계가 위급해진 가운데 설치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3. (가)~(다) 자료에 나타난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임금께서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 지금 그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 내에 부도(不道)한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나) 기축년 10월 2일 황해감사 한준의 비밀장계가 들어왔다. ……그 내용은, 수찬을 지낸 전주에 사는 정여립이 모반하여 괴수가 되었는데, 그 일당인 안악에 사는 조구가 밀고한 것이었다.
(다) 윤임은 화심(禍心)을 품고 오래도록 흉계를 쌓아 왔다. 처음에는 동궁(東宮)이 외롭다는 말을 주창하여 사림들 사이에 의심을 일으켰고, 중간에는 정유삼흉(丁酉三兇)의 무리와 결탁하여 국모를 해치려고 꾀하였고, …… 이에 윤임·유관·유인숙 세 사람에게는 사사(賜死)만 명한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다) - (나) - (가)

정답 : ②
(가)는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인한 무오사화(1498), (다)는 명종 때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을사사화(1545), (나)는 선조 때의 정여립 모반 사건(기축옥사, 1589)에 대한 내용이다.

14.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궐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한번 죽음은 인간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 황천(皇天)의 명령을 받들고 일체의 못된 굴레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가)	(나)	(다)	(라)	
대종교 창시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한인 애국단 조직	한국광복군 창설	건국 동맹 조직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 ②
대종교 창시는 1909년,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은 1914년, 한인 애국단 조직은 1931년, 한국광복군 창설은 1940년, 조선 건국 동맹 조직은 1944년의 사실이다.
제시된 사료는 1919년 중국 길림 등지에서 활동하던 조소앙이 작성하고 39명이 참여한 '대한 독립 선어서'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5. 다음 작품의 소재가 된 기기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을 하든간에 / 때를 아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겠거늘 밤에는 경루가 있지만 / 낮에는 알 길이 없더니 구리를 부어 기구를 만드니 / 형체는 가마솥과 같고 반경에 원거를 설치하여 / 남과 북이 마주하게 하였다 구멍이 꺾임을 따라도는 것은 / 점을 찍어서 그러하다 내면에는 도수를 그어 / 주천의 반이 되고 귀신의 몸을 그리기는 / 어리석은 백성 때문이요 각과 분이 또렷한 것은 / 햇볕이 통하기 때문이요 길가에 두는 것은 / 구경꾼이 모이는 때문이니 이로 비롯하여 / 백성이 작흥할 것을 알게 되리라

①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천뢰가 만들어졌다.
② 개량된 금속활자인 갑인자가 주조되었다.
③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되었다.
④ 민간에 떠도는 한담을 모은『필원잡기』가 편찬되었다.

정답 : ②
제시된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기기는 앙부일구(해시계)로, 세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② 세종 때 경자자(庚子字, 1420), 갑인자(甲寅字, 1434), 병진자(丙辰字, 1436) 등을 주조하였다.

① 비격진천뢰는 조선 선조 때 군기시 화포장 이장손이 제작한 포탄이다. ③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때 제작되었다. ④ 성종 18년(1487)에 간행된 서거정의 『필원잡기』는 조선의 예로부터 전하는 일사(逸事)와 한담(閑談) 중에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추려 모아 엮었다.

16. 다음 밑줄 친 '그 일'을 통해 조성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제 집정자와 문무백관 등과 함께 큰 서원(誓願)을 발하여 이미 담당 관사(官司)를 두어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의 역사(役事)를 살펴보았더니, 옛날 현종 2년(1011)에 거란주(契丹主)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거란 군사는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하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같고 전후로 판각한 것도 같으며,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또한 동일한데, 어찌 그때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達旦)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 -『동국이상국집』-

①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② 국보 제32호로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③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었다가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다.
④ 송과 요 등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교장도감에서 간행하였다.

바른 글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

정답 : ②
밑줄 친 '그 일'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해 제작한 팔만대장경 조판을 말한다.
②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체하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1236~1251)은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모두 보존되어 있다.
① 팔만대장경은 2007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③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은 초조대장경으로, 이는 몽골의 2차 침입에 의해 대부분 소실되었다. ④ 선종 3년(1086)에 설치된 교장도감을 통해 의천은 선종 8년(1091)부터 숙종 6년(1101)에 『교장』(일명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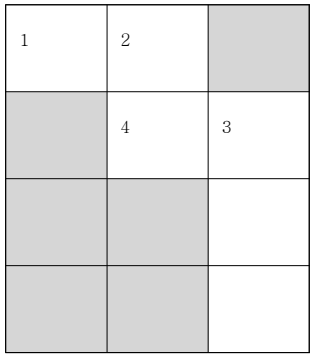
1. 내세의 복을 빌기 위하여 향을 강이나 바다에 잠가 둠. 또는 그런 일

4. 고려 시대에 곡물을 수취하도록 관리들에게 지급한 땅.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세로 열쇠

2. (가)

3. 고려시대의 과거를 관장한 시험관



① 구향과 신향 사이의 대립
②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는 토지
③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한 학교
④ 조선시대 각 도에서 실시하던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제1차 시험

정답 : ①
가로 열쇠 1번은 매향, 가로 열쇠 4번은 전지, 세로 열쇠 3번은 지공거로, 세로 열쇠 2번에 들어갈 단어는 '향전'이다.
① 18세기 중반부터 부세의 공동 납부 형태인 총액제 수취권에 대한 향촌 지배권을 두고 구향과 신향 간에 향전이 발생하였다.
② 사전, ③ 향교, ④ 초시에 대한 내용이다.

빠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

18. 다음 자료의 주장을 전개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아홉 도의 전답(田畓)을 고루 나누어 3분의 1을 취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에 한해서는 각각 2결(結)을 받도록 한다. (그 자신에 한하며 죽으면 8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 준다.) 전원(田園) 울타리 밑에 뽕나무와 삼[麻]을 심도록 하며, 심지 않는 자에게는 벌로 베[布]를 받는데 부인이 3명이면 베[布] 1필, 부인이 5명이면 명주[帛] 1필을 상례(常例)로 정한다.

① 『역학도해』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② 동·서양 수학을 정리하여 『주해수용』을 저술하였다.
③ 우주현상과 지리, 문화현상을 상술한 『지구전요』를 편찬하였다.
④ 『곽우록』을 저술하여 국가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홍대용이 주장한 균전론에 대한 내용으로, 홍대용은 성인 남성에게 토지 2결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홍대용은 서양 과학의 근본이 정밀한 수학과 정교한 관측에 근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주해수용』이라는 수학서를 썼으며, 혼천의와 서양식 후종 등 여러 가지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어 농수각(籠水閣)이라는 관측소에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① 김석문은 『역학도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③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하고, 뉴턴의 만유인력설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총서』를 저술한 인물은 최한기이다. ④ 『곽우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이 국가적 당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저서이다.

19. 다음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강점기에는 파고다공원으로 불렸다.
② 한성부 도시개조사업 과정에서 조성되었다.
③ 민족대표 33인이 이 장소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④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서울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있다

정답 : ③
제시된 사진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근대 공원인 탑골공원이다.
③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곳은 서울 종로의 태화관이다.
① 탑골 공원은 탑공원, 탑동공원,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리는데, 파고다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이곳을 공원으로 설계하여 꾸미도록 건의한 영국인 브라운이 '탑이 있는 공원'이라는 뜻에서 파고다공원(Pagoda Park)으로 부를 것도 같이 건의하였을 것이라는 설과, 백탑(Pagtab)이라는 음이 변화하여 파고다가 되었다는 설이다. ② 탑골공원이 언제 공원으로 개설되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정설이 없으나, 1897년 대한 제국 초기 총세무사 브라운의 건의에 의하여 건설되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비를 주고 민가를 철거하여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탑골 공원은 조선 시대에 건립된 원각사 절터에 세운 공원으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남아 있다.

20.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국교(國敎)·국학·국어·국문·국사는 혼(魂)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군대·성지(城地)·함선·기계 등은 백에 속하는 것으로 혼의 됨됨은 백(魄)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이른바 혼은 살아있는가, 없는가.

①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② 진단학회에 참여하여『진단학보』발간에 기여하였다.
③ 「동국고대선교고」,「꿈하늘」,『조선사론』등을 저술하였다.
④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국혼(國魂)과 국백(國魄)을 주장한 박은식의 『한국통사』의 일부이다.
① 박은식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해에 61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들과 함께 대한 국민 노인 동맹단을 조직해 취지서를 쓰고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대한 국민 노인 동맹단은 강우규를 국내에 파견해 일제 총독 사이토에 대한 폭탄 투척 의거를 일으켰다. ② 진닥학회에 참여하여 『진단학보』 발간에 기여한 인물은 이병도, 손진태 등이다. ③ 신채호는 역사 관계 논문인 「동국고대선교고」, 「조선사론」을 저술하였고, 소설인 「꿈하늘」을 발표하였다. ④ 백남운은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한국사도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등을 저술하여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海東韓國史